

만해 체험관 건립된다

불교개혁과 대중화에 앞장선 스님이자,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민족시인이면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민족혼을 일깨웠던 만해 한용운. 만해 한용운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체험관이 만해의 생가터에 건립된다.

충남 홍성군은 결성된 성곡리 소재 만해 한용운의 생가터 일대에 올해부터 2006년 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300평 규모의 '만해체험관'을 건립키로 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홍성군은 최근 일본의 독도영안과 교과서 왜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만해체험관을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성지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만해체험관은 유품전시실을 비롯해 불교사상관 독립사상관 문학사상관 등을 조성해 만해의 사상과 업적을 조망하게 된다. 불교사상관에는 만해의 불교사상을 담은 책자나 각종 기교본 등이, 독립사상관에는 만해의 민족사상이 담긴 저서나 활동

흔적이 담긴 유품이, 문학사상관에는 만해 시와 각종 저작물이 전시되며, 현재 400여 점의 유품을 확보한 상태.

홍성군은 현재 만해체험관 건립을 위한 설계에 들어갔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만해 생가터 주변에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민족시비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다음달인 5월에 완공되는 민족시비공원은 만해 한용운의 '복죽' 정지용의 '고향' 이육사의 '절정' 운동주의

'간' 신동엽의 '검뎀기는 가라' 등 광복을 전후해 활동한 민족시인 20인의 시와 어록을 새긴 비를 세워 민족정신을 고취의 중심지로 가꾸어갈 계획이다.

홍성군 문화공보실 박중진씨는 "만해 스님은 꺼져가는 민족혼의 불씨를 지피고 자유와 평화 비폭력 정신으로 민족의 내일을 일깨운 분"이라며 "만해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만해체험관을 민족혼의 성지로 가꾸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4월 20일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법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부처님전에 연등을 공양하고 있다. 사진=공화국제단

“기도에 보답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한 기원법회’서 노대통령 불교계 인사와 담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이하 종단협)추최로 4월 20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이제 불교계는 화합과 상생 나눔의 불교정신을 구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시간에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 김동건 변호사가 '화합과 상생' '나눔' '공직자의 종교관'과 관련한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한 질의에 대한 회답. 노 대통령은 "불교계는 최근 100년간 자유롭고 안정된 삶이 불가능한 조건속에서 살아야 했던 국민들에게 불교정신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불교정신을 이제는 꽃피울 수 있는 상황이 만큼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백,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조계종 전국비구녀회장 명성 스님, 총지종 총무원장 우성 정사와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 이용희 국회 정각회장,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 윤원호 열린우리당불자회장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들으며 자랐으며, 사법고시 준비도 김해에 있는 장유암에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불교인연을 자세히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사찰에 머물렀던 스님들의 육식을 버리고 큰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과 절제된 생활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며 "그때 절에서 느낀 생각들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후보시절 법정 법전 큰스님이 '세상의 거울이 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치인끼리 서로 칭찬하라'는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초체력은 괜찮아”
"1998년 2003년 떨어진 소득과 수출 등의 수치가 점차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기초체력은 괜찮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의 해외순방 시의 소감과 상황을 피력하며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접을 받았었다. 외국에 나가보니 우리나라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 평가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보고를 받음에 수취자는 섭섭함, 수출등과 관련된 사항은 그 증감을 연도별로 그래프로 그려달라 한다"며 "최근 그래프가 좋은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낙산사, 건칠관세음보살좌상 임시 봉안

화마를 피해 다른 곳에 보관됐던 낙산사 건칠관세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이 4월 22일 의상교육관 2층에 마련된 임시법당에 봉안됐다.

낙산사 관음신앙의 중심지였던 원통보전을 대신한 의상교육관은 2001년 지어진 2층 건물(연면적 120평)로 신도교육 및 템플스테이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화재에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현재 1층은 임시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10여 평 규모의 임시법당은 원통보전이 복원될 때까지 법당으로 사용된다.

한편, 문화재복구대책반 김창준 반장(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은)은 "법골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직접 하게 되고, 착수 시점은 부처님오신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원 지원 대상 전각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지방유형문화재는 행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기타 시설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한편,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낙산사는 '화재 발생 다음날인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단체, 기업, 군·경찰 등 약 55개 단체에서 4800여명이 낙산사 화재 복구 장비지원 및 잔해를 수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6일 100여명의 조계종 특별재난구호단이 급파돼 1박 2일간 잔해를 수거와 이동 통로 확보 등을 실시한데 이어, 평창 월정사도 35명의 자원봉사단을 지원해 경내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부산 범어사 30여명의 학인스님들과 부산 흥법사 신도들, 원주 구룡사 불교대학 재학생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 외에도 일출부대 장병 1800여명과 영월경찰서 전의경 80여명, KT,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가 각종 지원활동을 펼쳤다. **남동우 · 박익순 기자**



‘불교와 사회’ 뜨거운 토론 열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 과 과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3회 불교와 사회 토론포럼장이 불교지도자(상임대표 김규철)와 현대불교신문(사장 김광삼) 공동추최로 4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발표장을 가득 메운 재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원식씨(문명법평가)의 '새로운 인간상의 구현과 문명혁신의 전략', 이찬훈 인제대 교수의 '불이사와 21세기 한반도', 김규철 국민대 객원교수(前 불교방송 사장)의 '복합시대, 인간존엄의 사회철학적 기초'가 발표됐다. 사진=박재환 기자

5월 어린이날 행사 풍성

노래잔치·사생대회 열려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다양한 행사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맞이한다.

5월 1일 오후1시부터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청년회(회장 이봉수)가 동국대학교 강강당에서 제17회 전국어린이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한다. (02)730-9108

월간 <불광>과 목야불교박물관이 여는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는 올해는 장소로 부산 범어사(주지 대영)로 옮겨 펼쳐진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주최 제21회 연꽃문화제도 함께 열려 5월 5일 범어사 일대는 온통 축제마당이 된다. 12개의 놀이마당이 벌어질 연꽃문화제는 부처님 퍼즐, 기와모양 탁본, 수수깡 바람개비 만들기, 불공전 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알까기 등으로 진행된다. (02)420-3200 (05)1864-4569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와 대구불교방송은 동화사와 팔공산 일대에서 5000여명의 유치원 초·중학생이 참여하는 글짓기 그림그리기와 함께 디카 촬영대회인 '2005 꿈이 있는 문예마당'을 5월 5일 개최한다. '2005 꿈이 있는 문예마당'에서는 어린이 날 축하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도 진행된다. (05)3427-5114

도선사(주지 혜자)는 5월 5일 오전 10시 제3회 도선사 어린이 사생대회를 연다. 도선사는 사생대회와 함께 페이스페인팅 등의 간이행사도 곁들여 어린이들에게 흥겨운 놀이마당을 선사할 예정이다.(02)993-3161

서울 월봉사(주지 오심)도 5월 5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부처님이 좋아요'를 주제로 유치원·초등학생 대상의 사생대회를 연다. (05)251-4602 **강지영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존' 운영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최근 문화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서울북촌 '청소년문화존(zone)' 운영 등 6개 청소년 프로그램의 주관단체로 선정됐다.

파라미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한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의 운영자로 선정되기는 처음이다.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서울북촌 '청소년문화존'은 북촌 한옥 마을과 인사동 일대에서 전통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공모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총사업비 1억6610만원으로 △전통공예 체험(매주) △전통 골목길 찾아가기(격주) △조선시대 북촌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

서, 갑신정변의 자취를 따라서, 3·1운동의 물결 속으로, 박물관과 공방 나눔이, 한옥의 건축 미학 속으로, 문학의 향기 속으로 △인사동 다가가기(격주) △인사동 미술여행 △전통공예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또 서울시의 지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일본속 한국문화'를 찾아서-청소년 자율탐사단'이 8월 8-13일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등을 찾아가는 이밖에도 파라미타는 하이서울을 체계전 사랑운동(서울시), 소외 청소년 심성개발프로그램(문화관광부, 중국청년지도자 초청사업(문화관광부), 체험하는 문화재모니터링 활동(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을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한다. **강지영 기자 jyang@buddhapia.com**

봉축점등·경로잔치

서울 성북사암련·장학회

서울 성북사암연합회(회장 정수)와 성북사암장학회(회장 지은)는 5월 1일 오전 11시 안암동 개운사에서 지역 어르신 1200명

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연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겸해 열리는 이날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한다.

앞서 4월 29일에는 성북경상위위원회(실장 중근)와 성북경찰서 불교회 주관으로 봉축법요와 성북경찰서 인근 봉축등 점등식이 열릴 예정이다. **박병영 기자**

2005 APEC 성공개최기원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나사랑 부산! 시민연등축제

봉축연합대회는 FM89.9MHz 부산불교방송에서 생중계 됩니다.

봉축 점등식

- 일시: 4월 29일(음 321/목) 오후 6시
- 장소: 부산역 광장
- 내용: 봉축담, 모형 용, 연등으로 정연한 봉축상징물의 점등

APEC 성공기원 기원 '3번재 열아정진'

- 일시: 5월 4일(음 326/수) 오후 8시~5일(목) 오전 4시
- 장소: 부산역 광장
- 내용: 50여명의 스님과 500여명의 불자들이

시민문학축제

- 일시: 5월 5일(음 327/목) 오후 3시~5시
- 장소: 부산역 광장
- 내용: 영산재 시연, 육법공양, 난타, 힙합댄스, 브레이크 댄스

봉축연합대회의

- 일시: 5월 5일(음 327/목) 오후 5시~6시
- 장소: 부산역 광장
- 내용: ① 2만여명의 시민·불자가 함께 APEC성공개최와 부산발전을 염원하는 연합대법회 ②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찬불합창

계동행진

- 일시: 5월 5일(음 327/목) 오후 6시30분
- 코스: 부산역광장 → 부산진역 → 부산불교방송앞 → 범남골로터리 → 서면로터리

나눔의 장		복지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구법도 유문법회	4월 중	구법당	국학진흥원	628-7200
민발광(부류교식)	4. 5	총불 박물관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민발광(부류교식)	4. 6	낙동총사지비회	낙동총사지비회	271-0560
민발광(부류교식)	4. 12	총불 박물관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독거노인 반찬 공양	4. 12	각 대상 가정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지비불 불복행사	4. 12	각 대상 가정	통도사 지비회	816-2241
경로잔치	4. 13~11.00	학사당	학사당	249-0819
유류차입식	4. 17	통도사부사모교회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독거노인 부류공양	4. 19	사학사당	사학부류사업연합회	207-4884
민발광(부류교식)	4. 19	총불 박물관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부사모교회 대법회	4. 20	부사모교회	부사모교회	817-3166
한양유문법회	4. 20	낙동총사지비회	낙동총사지비회	271-0560
독거노인 부류공양	4. 26	사학사당	사학부류사업연합회	207-4884
민발광(부류교식)	4. 26	총불 박물관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지비불 불복행사	4. 26	각 대상 가정	통도사 지비회	816-2241
독거노인 반찬 공양	4. 26	각 대상 가정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영양부류공양	4. 27	낙동총사지비회	낙동총사지비회	271-0560
제1회 경로축성 시상 및 제15회 경로잔치	4. 29	삼강사 지관전	삼강사	808-7111
묘도 교잔치	11.00	해운사	사학부류사업연합회	868-0138
도시락 배달	4월-5월	각 대상 가정	사학부류사업연합회	868-0138
괴내 어린이 부류공양	5월 중	천안역	천안역	338-1008
지비불 불복행사	5월 중	총불 박물관	통도사부사모교회	555-9702
부사모교회 대법회	5월 중	부사모교회	부사모교회	808-7111
경로잔치	5월 중	부사모교회	부사모교회	646-0843
제1회 경로잔치	5. 1	남문정사	남문정사	207-4884
제1회 경로잔치	5. 2	낙동 총사지비회	낙동총사지비회	264-9033
경로잔치	5. 2	삼강사	삼강사	635-7744
독거노인 부류공양	5. 3	사학사당	사학부류사업연합회	207-4884
민발광(부류교식)	5. 3	총불 박물관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아미여불도회	5. 3	총불 박물관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시민과 함께		전시·공연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민발광(부류교식)	5. 10	초불 박물관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독거노인 반찬 공양	5. 10	각 대상 가정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경로잔치	5. 10	각 대상 가정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부사모교회 대법회	5. 12-13	부사모교회	부사모교회	754-9297
부류아미여불도회	5. 13-14.00	삼강사	삼강사	808-7111
독거노인 반찬 공양	5. 14	영학사당	영학사당	757-9097
꽃축회 불복행사	5. 14-15	낙동총사지비회	낙동총사지비회	264-9033
유류차입식	5. 15	각 대상 가정	통도사부사모교회	816-2241
경로잔치	5. 15	보통사	보통사	508-0148
경로잔치	5. 15	해운사	해운사	808-7111
김해 공군기지 유문	5. 15 19.00	김해 공군기지	삼강사	808-7111
부사모교회 대법회	5. 16	부사모교회	부사모교회	885-5034
미경의대 불복행사	5. 17	사학사당	사학부류사업연합회	207-4884
한양유문법회	5. 18	낙동총사지비회	낙동총사지비회	271-0560
독거노인 부류공양	5. 24	사학사당	사학부류사업연합회	207-4884
영양부류공양	5. 25	낙동총사지비회	낙동총사지비회	271-0560
독거노인 반찬 공양	5. 25	사학사당	사학부류사업연합회	207-4884
독거노인 반찬 공양	5. 31	사학사당	사학부류사업연합회	207-4884
소년 소녀가장등 후원금회	6월 중	해운사	사회복지법인 해운	868-0138